

오피니언

光日春秋

한수산



지난 5월 초하루였다. 황사가 뒤섞인 빗발이 적시고 가는 4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소설가 김용성은 이승을 떠나 땅에 묻혔다. 세월의 격차가 있어 캠퍼스에서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나에게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배였다.

그리고 그가 맡아낸 사회적 역할이다. 한 작가가 해낸 문학적 성취나 사회적 역할과는 무관하게 '인기'에 따라 지나치다 싶게 호들갑을 떨어대는 요즘의 언론풍토, 그러나 그것 또한 품격의 외연함을 잃

자하면서 날카로운 현실비판과 풍자를 담았던 이 소설은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세간의 폭넓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그 무렵 전국의 이곳저곳에 리빠퐁이라는 이름의 술집이 여기저기 생겨났던 사실이 그 소설의 화제성을 말해 주며, 작가 김용성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이 소설 제목에서 따온 '리빠퐁'이라는 상호를 단 가게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딱하게도, 그 가운데는 치킨집도 있다. 그런 간판 앞을 지날 때마다 리빠퐁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 못하겠

나라 특히 문학도들에게는 문인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일깨우는 지침이 되었

영결식을 마치고 남한강가의 서재로 돌아오니, 며칠 전까지도 하얗게 흐드러졌던 매화꽃은 지고 없었다. 흠뻑리고 간눈발처럼 희디희게 꽃잎이 깔려 있는 들에서 매화는 또 새잎을 틔우며 어느새 또 다른 봄을 만들고 있었다. 살아가는 일, 그 또한 꽃이 피고 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기다리지 않아도 그날은 온다. 약속하지 않아도 그날은 온다.

죽음이 갈라놓는 헤어짐은 자연이다. 발버둥치고 피하려 한다고 해도 자연은 그렇게 어긋남이 없다.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직선 인간의 신이며 자연의 선은 곡선이냐는 철학으로 일관했듯, 자연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우리는 다만 그 자연 속의 하나일 뿐이다. 올 때가 있으면 가야 할 때가 있는 그 자연의 순환을 잇는 하나의 고리일 뿐이다.

꽃은 피고, 진다. 떠나보낸 김용성 선배가 어찌 내린 봄비의 진심이 되어 나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를 누구에게나 떠나야 할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차가운 진실을, 그 자연의 엄격함을

<작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어만 가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가 1961년 장편소설 '맑은 자와 찾은 자'로 등단했을 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한 청년의 이 화려한 데뷔는 실로 어린 소년에게 아름답기 그지없는 충격이었다. 그의 여러 역작 가운데는 '군대 조직 내의 비인간적인 폭력 구조를 통해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을 비판'했다는 평을 들

그가 70년대 초 '리빠퐁 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연재할 때였다. 세태를 풍

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리빠퐁이란, 오직 잇속과 시류를 따라 풍파리처럼 날아다니는 인간군상을 가리키는 작가 김용성이 만들어낸 조어다. 차마 풍파리 사장, 풍파리 장군이라고 격조 없는 날짜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작가는 이 말을 거꾸로 써서 리빠퐁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른 면에서 작가 김용성의 산문이 가지는 힘과 취재력을 보여준 것은 '한국문학사탐방'이 아니었나 싶다. 작고 문인들의 자취를 찾아 답사하면서 살아가는 생생한 숨결을 전하고 소중한 자료를 통해 문학적 향기를 다시 음미할 수 있게 했던 이 르포물은 연구구나 일반인에게만이 아

의료 칼럼



나원민

갑자기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면서 목 뒷덜미, 등까지 따가워졌다. 따가워지면 다시 오한이 생기기를 하루 수차례 반복한다. 밤에도 더워서 창문을 다 열고 자거나 혼자 거실에 나와서 자는 일이 많아졌다. 갑자기 저열해지고 인상이 허무해지면서 눈물이 난다.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이 늘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여성 갱년기 장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여성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여성호

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양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월경이 빨라지거나 또는 늦어지는 등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월경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점차 폐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인 폐경 연령은 약 49세 정도이다. 그러나 폐경 시기는 개인에 따라 일정치 않고 사회 문화적인 영향과 영양 및 의료 서비스의 개선으로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로 가는 과도기, 즉 폐경 전후 약 10년 정도를 갱년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내분비학적,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난다. 폐경은 모든 여성에게 나타나지만 증상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어떤 여성은 폐경으로 생리통과 자궁근종 등의 질병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고 말

한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폐경으로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전신에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약순환의 눈에 빠진 듯한 느낌을 호소한다.

갱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궁, 난소, 심장 등의 비호르몬 기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화기(火氣)가 위로 오르면서 상열하한(上熱下寒)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상열(上熱)로 인한 증상은 안면홍조, 가슴 두근거림 및 답답함, 상열감, 야간 발한, 불면초조, 우울감 등이고 하한(下寒) 증상은 요통, 무릎 통증과 시력, 질위축으로 인한 성교통, 요실금, 소변이 시원치 못한 증상 등이 있다. 폐경이 오면 또한 흔히 겪는 질환이 골다공증이다.

이러한 갱년기 증상은 개인별로 강도의 차이가 다양하다. 갱년기에도 전체 여성 중 25%는 별다른 증세를 느끼지 않고, 50% 정도는 가벼운 증세를 느끼며, 나머지 25%

정도는 심각한 증세를 경험하게 된다. 기간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7~10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경은 시작되는 이행기에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와 다르게 갑작스런 불면증, 우울감과 건망증, 요실금 등이 심해진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한의학적인 갱년기 증후군 치료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몸의 기혈 순환을 돕는 침 치료와 자궁난소 계통을 강화시키는 뜸 치료를 병행하거나 한약액을 정제해 피하에 투입하는 약침을 사용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또한 중요하다. 폐경 이후에는 감작성 기능이 저하돼 감염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소식하는 습관을 가져서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나 멸치 같은 간뼈생선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고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실랑, 술, 담배, 카페인, 이뇨제, 갑상선호르몬 등은 골 손실을 유발하므로 이들의 섭취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 <침단한방병원 원장>

갱년기 증후군의 지혜로운 대처법

청소년 놀이문화센터 만들어 주자

기고



김광호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귀결되기 때문에 체성과 덕성보다는 지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자연스럽게 지식교육을 전달하는 획일화된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 많은 사람이 교육환경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 환경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해 본다. 첫째, 학교에 특별 놀이문화센터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70~100평 규모로 노래방, 당구장, 실내미니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음악 감상실, 영화 감상실,

댄스 창작실, 스쿼시연습장, 사위술 등 놀이문화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 놀이문화 센터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분명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는 흥미 지수, 호기심지수가 높은 장소로 발전할 것이다.

둘째 각 시나 군 단위에 청소년 놀이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700~1000평 규모로 실내놀이문화센터와 실외운동문화센터 그리고 자연·문화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문화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놀이문화와 체험학습을 통하여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놀이문화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

인가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각 영역별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뽑아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취미나 놀이문화를 가르쳐 주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전라남도, 시정, 군청,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 놀이문화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회의 일자리 창출은 당연한 것이며 대졸자 취업문제 또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대졸자의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교육정책이 아니겠는가? 더 나가 대학졸업자들은 직장을 얻었으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기업의 매출은 늘어 날것이고 경제는 자연스럽게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게 바로 국

가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해야 할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지구촌화 되었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 주도하의 일반적인 지식교육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대안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 학습을 겸비한 지식 더하기, 다양한 놀이 체험을 통한 지식 더하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이 급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많은 학생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식공부기가 아니라 놀이, 문화, 체험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흥미지수가 높은 공간, 호기심지수가 높은 공간, 스트레스지수가 낮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그 학생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양고등학교 교사>

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의학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보호자들을 위해 쉬운말로 풀어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이해 어려운 의학용어 쉽게 설명해 줬으면

최근 연료하산 할아버지께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병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는 뇌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뇌저주막하 파열돼 생겼지요. 개두술 후 동맥류를 결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뇌부종, 뇌혈관연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보호자를 앞에 놓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정작 보호자는 제대로 알아듣기는 너무나 힘들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다고 한다. "뇌를 싸고 있는 막과 뇌 사이에서 출혈이 발생했어요. 원인은 뇌동맥에서 파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열고 파리의 목 부위를 클립으로 묶어 더 이상 피가 파리로 들어가서 다시 출혈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뇌가 부을 수 있습니다. 또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 순환이 안 될 수 있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어린이들이 과연 행복 속에 자라고 있는가

오늘은 89번째 맞는 어린이날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명시돼 있는 대로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 어린이들은 이 헌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국제비교' 결과를 보더라도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하니 말이다.

OECD국가 평균을 100점으로 했을 때 65.98점에 지나지 않는다.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6가지 항목 중 삶의 만족도와 건강, 소속감, 외로움 등에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치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가정의 빈곤, 무관심 등에서 찾아야 한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린 소녀에 대한 성폭력과 살해, 납치사건이 난무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고, 어린이 실종건수가 해마다 1만 건에 달하는 등 범죄에 속수무책이다. 부모 이혼과 가출, 경제적 빈곤에 따른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가정과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도 급증 추세다.

이런 현실에 어린이날을 지켜볼 때마다 우리의 심정은 부끄럽고 착잡하다.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치 못해 하는 1회용 이벤트가 아닐 것이다. 어린이날이 오히려 괴로운 결승점 어린이나 육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역시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손길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불행하다면 가정과 사회, 국가 차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는

10년째 주인없는 '대우일렉' 이대론 안 된다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가 10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갈수록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대기업 대우일렉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우일렉의 매각 차질은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라케 다국적기업 엔텍그룹이 인수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빚어지고 있다. 엔텍합은 지난해 12월 7일이 시한인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채권단은 계약 종결일을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연장한 것을 알려졌다.

특히 엔텍합은 인수 계약금 578억만 납부한 상태로 잔금 등 총 4137억 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추가 자금은 물론 연구개발(R&D) 투자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일렉은 신제품 기술개발과 신규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업 가치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임금 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종업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매각 차질이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우일렉은 광주주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1조2829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을 기록한 대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우일렉의 매각작업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채권단은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엔텍합이 인수 능력이 없으면 제 3의 인수자를 찾는 등 정상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엔텍합만 쳐다보며 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도 대우일렉 사태를 면신보듯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無等鼓

'뽀뽀뽀 뽀로로'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전 세계 110여개국에 방영 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애들 키우는 사람은 안다. 뽀로로가 행한 기적과 같은 일들. TV에서 뽀로로를 경건한 자세로 보는 아이들 사진을 두고 뽀로로가 유아세계에서 거의 종교에 가깝다는 뜻에서 '뽀니톨로지'나 '뽀통령'으로 불린다.

이처럼 아이들,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뽀로로는 진리요, 빛으로 통한다. 3600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와 캐릭터 상품 누적 매출 8300억 원(2010년 기준), 전 세계 110여개국 방영 같은 데이터는 뽀로로에 대한 복음은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 3만 3000여대 판매실적과 맞먹는 수치다. 뽀로로의 성공 비결로 5~7년간의 러닝타임을 꼽는다. 유아들의 집중력이 5분 정도라는 연구결과에 입각한 과학적 데이터다. 하지만 뽀로로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각각의 캐릭터가 어떤 사건 앞에서 서로 협동하거나 불화하는 과정을

겪고 무언가를 배운 뒤, 모두가 행복해지는 과정을 무리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뽀뽀뽀의 뽀미 언니나 방구대장 뽀뽀이의 짜잔 형처럼 어른이 등장해서 윤리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누군가 실수하고, 평가가 망가지고 터지는 사건들은 정상적 일상의 균열이 아니라,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일상이다. 무엇이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그 일상의 모험속에서 서로 배워나간다.

뽀로로의 사회화는 어른들이 만든 윤리적 기준으로 말쑥할 러기 아이들의 일탈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쑥을 일으키고 친구들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사회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뽀로로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행동을 긍정해주고 오히려 북돋아준다.

대한민국의 뽀로로가 일본의 '헬로키티'나 미국의 '미키 마우스' 처럼 50년 넘게 살아남아 전 세계 어린이들의 뽀통령, 뽀느님, 뽀니톨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 | | | |
|--|------------------|-------------------|---------------------|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宅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논설주간 申港樂 | 편집국장 李庚完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매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